

'01~'05년 국방중기계획 확정

현존 위협과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 군사력 건설에 중점

국방부 는 21세기 군사력 건설 및 유지의 초석이 되는 「'01~'0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심의(2. 28)와 대통령 재가(3. 27)를 받아 확정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중기계획은 '01년도 예산편성의 기준문서로서,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01년 국방예산 요구(안)를 작성하여 금년 5월말까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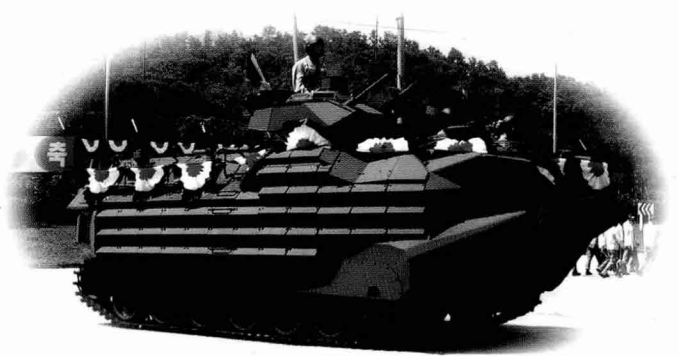
'01~'05 중기계획의 재원규모는 정부의 「'00~'04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정부재정의 연평균 증가율인 6% 수준에서 계획되었다.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군사력 유지를 위한 경상운영비 사업은 Zero Base 차원에서 사업별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간축 배분하였고, 군사력 건설을 위한 투자사업 재원은 연차적으로 상향배분하여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년 37% 수준에서 '05년에는 40.9%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01~'05 기간중 연평균 투자비 대 경상운영비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9.5:60.5」가 될 전망이다.

■ 투자사업 분야

'01~'05 기간 동안의 투자사업은 “현존하는 위협 뿐만 아니라 미래전 양상에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화·



▲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과학화된 첨단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목표하에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첨단 정보·과학전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전력 증강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현존전력 발휘 극대화를 위한 필수전력은 선별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21세기 첨단무기체계 자주화를 위한 핵심기술 분야를 집중 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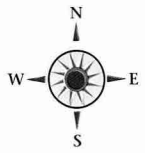
이를 위한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C4(지휘·통제·통신·컴퓨터) 체계전력은 현재 진행중인 SPIDER(육군), KNTDS(해), MCRC(공) 등의 사업과 이동형 레이더, 항만감시체계, 각종 신형 통신장비(VHF, UHF)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C4체계의 핵심 기반체계를 구축한다.

정보 및 전자전 전력은 현재 진행중인 백두/금강, 전자

중기재원 규모

국방재원	투자재원	경상운용재원
87조 4,938억원 (100%)	34조 5,846억원 (39.5%)	52조 9,092억원 (60.5%)



전 장비(ASPJ, RWR), 야간투시경 등의 사업과 조기경보 통제기, 무인정찰기, 전자광학영상장비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정보 및 전자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기동 및 타격전력은 현재 진행중인 230밀리 다련장, 155밀리 신형자주포, K-1 전차성능개량 등의 사업과 공격 헬기(AH-X), 2.75인치 다목적 분산탄, 토우 성능개량, 전방 관측 적외선 장비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전략목표에 대한 타격능력을 구비한다.

해상 및 수중전력은 현재 진행중인 한국형 구축함(KDX-II), 차기 잠수함, 소해함, 상륙돌격 장갑차, 부산작전기지 등의 사업과 7,000톤급 구축함(KDX-III), 해상초계기 2차, 고속 상륙정, 심해잠수 훈련장비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입체해상작전을 위한 기반전력을 구축한다.

공중 및 방공전력은 현재 진행중인 KF-16 전투기, 천마, 공대공 유도탄, 공중전투기동훈련장비 등의 사업과 차기 전투기(F-X), 차기유도무기(SAM-X), KTX-II 양산, 공중급유기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항공 우세권 확보와 수도권을 비롯한 핵심시설 방호능력을 완비한다.

연구개발분야는 30여개의 체계개발 사업과 기초연구 및 핵심기술 개발 사업 등을 반영하여 선진국 수준을 지향하는 군사기술을 축적한다.

정책사업으로는 KTX-II 정부분담금, KF-16 추가생산(20대), 636사업, VIP 전용헬기 등을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투자사업들은 지금까지는 비밀로 분류되어 국·내외 무기공급업체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중기계획부터는 투자사업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장비별·연도별 확보량」과 「자원규모」가 포함된 「중기계획 열람본」을 발간하여 조달본부 및 방위산업진흥회의 상담실에 각각 비치함으로써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업체 및 개인이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만 거치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 경상운영비사업 분야

'01~'05 기간중 경상운영비 분야는 “제한된 국방가용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현존전력의 전투력 발휘를 극

대화하고 정보화·과학화된 군 육성에 적극 이바지한다”는 목표하에 Zero-Base 차원에서 사업별 경중, 완급과 타당성을 정밀 검토하여 불요불급하거나 투자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들은 과감히 축소 또는 삭제하고, 국방정보화사업, 과학화훈련, 환경보전시설, 장병의 사기 복지대책 등 미래지향적 사업에 중점투자하였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우선 국방정보화·과학화를 위하여 중대급 이상 부대의 행정실무자들에게 개인용 컴퓨터를 1인 1대씩 보급하고, 연대급 이상 부대에 광역전산망과 근거리전산망을 설치하며, 인제·홍천 지역에 과학화 훈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다음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폐수 처리 시설은 수계별로 중점 추진하여, '01년도에는 한강/낙동강 수계, '02년도에는 금강/영산강 수계, 그리고 '03년도에는 기타 지역을 완료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소각시설, 소음방지시설 및 토지오염방지시설은 '05년까지 100% 확보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군 간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군 숙소는 20년 이상 되어 노후화 되었거나 15평 이하의 협소한 숙소를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되, 민간아파트의 임대·매입과 신축을 병행 추진하고, 독신자 숙소도 기존 군 숙소를 보수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신축을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K-9 155밀리 신형 자주포



아울러 병사들의 복무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형통합 막사, 취사식당, 목욕탕, 화장실 등 병영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병영시설 환경을 단순 “수용” 개념에서 “생활공간” 개념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되어온 군사용 사유재산 정리 및 불발탄 처리장 부지매입 등 민간부문의 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대민 위해요소를 제거

하도록 계획하였다.

'01~'05 중기계획이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05년말 우리 군의 모습은 방위 능력면에서는 조기경보 및 전쟁 억제능력을 갖춘 선진 정예군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고, 군 구조면에서는 지상군 중심체제에서 해·공군 역할이 확대된 높은 수준의 정보화 및 과학화된 기술집약형 구조를 구현하게 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예 강군으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KF-16 전투기 1차 사업 성공적으로 완료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공장에서 120호기 공군에 인도

한국 항공우주산업(대표이사: 임인택)은 지난 4월 19일 사천 1공장에서 공군 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 협력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KF-16 전투기 최종호기(120호기)를 공군에 인도함으로써 한국형 전투기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한국 공군의 전력증강을 위해 지난 '92년 사업에 착수한 한국형 전투기 사업(KFP: Korea Fighter Program)은 총 사업규모 50억달러로 총 120개 업체가 참여, 1조원의

투자과 4,000명의 인력을 투입한 국내 항공산업 역사상 최대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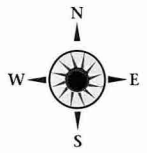
국내 항공업계는 KF-16 전투기 사업을 통하여 생산기술 및 사업관리측면에서 선진 수준의 능력을 축적하는 한편 원제기업체와 부품, 소재업체의 계열화체제를 촉진하고, 나아가 T-50 등 고등훈련기 개발능력을 함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KF-16 전투기 사업은 단순히 전투기를 생산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내 항공업계가 '80년대의 낙후 상태에서 벗어나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이 된 역사적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의 항공부문을 통합하여 '99년 10월 설립된 회사로 정부로부터 항공기사업을 전담하는 전문화업체로 지정 받은 바 있으며, 한국형 전투기 2차사업(총 20대)을 수주 받아 추가로 공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금번 KF-16 1차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계기로 당면 과제인 KT-1의 양산, 고등훈련기인 T-50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해외협력업체와 전략





적 제휴를 구축해 민항기 부품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세계적인 항공업체로 발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형 전투기 사업 이후 국내 항공산업은 KF-16 생산을 통해 축적한 능력을 바탕으로 면허생산단계에서 탈피해 독자 개발 능력을 구축하는 중으로 향후 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최대 수요자인 정부의 장기 안정적

물량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거 F-5 사업 이후 KFP 사업까지 장기간 공백으로 인해 시설유류화 및 인력 유출로 항공산업 발전이 낙후된 것을 교훈삼아 KFP 2차 사업의 조기 계약 체결과 KF-16 후속사업 및 육군 헬기사업 등의 조기 확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품관소, 품질정보 신고센터 운영

전문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을 위해 품질보증활동 강화

국방 품질관리소는 고도정밀·복합무기의 개발, 배치, 운영 등 급속하게 변하는 군 운용무기에 대한 사용자 불만 처리와 품질정보 수집업무 및 사후봉사(A/S) 지원 등의 대군지원 활동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을 위해 품질보증활동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품질정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품관소의 품질보증활동은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생산·운용에 이르기까지 전단계에 걸쳐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연구단계에서는 품질보증계획수립, 품질평가, 생산기술연구 활동을, 생산단계에서는 최적의 공정 연구, 생산성 제고, 품질개선활동이, 운용단계에서는 사용자 교육, 정비기술전파, 품질정보 수집 및 분석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품관소는 특히 이러한 활동중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품질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군>이 요구되는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조치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군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군지원실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대군 지원실의 주요 임무는 사용자 불만처리, 부대방문 활동(Before Service/After Service)을 통한 품질정보의 수집·분석 및 처리, 초도양산관계 IOC 참여지원, 기술자료

전파/교육지원, 기술교범 오류/개선사항 검토 지원, 대군 지원활동 기술보고서 발간/배포 등이며, 이중 특히 부대 방문을 통한 품질정보 수집 활동은 <사용군>이 장비/보급품 운용중 불만족사항, 개량요구사항에 기여함은 물론, 주요전투장비의 결함 발생요인을 품관소의 전문요원이 부대 방문시 사전인지하여 후속조치를 함으로써 치명결함을 방지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품관소는 사용군의 품질정보체계 구축 및 신속하고 광범위한 품질정보를 획득하고자 “품질정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방일보에 안내문(분기1회)을 게재하고, 안내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또한 국방망 홈페이지 WWW.dqaa.mnd.mil(인터넷 홈페이지 www.dqaa.go.kr)를 방문하면 각종 품질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군수품 “품질정보 신고센터”란에는 군수품에 대한 품질 개선사항이나 품질 불만족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품질 관련정보(품관소 소개, 품보업무 안내, 시험분석 안내, 민원업무안내, 공지사항, 자료실, 국방품질 시스템 인증, 민군 규격통일화 사업, 국방품질지, 열린 게시판 등)와 기술보고서 검색, 국방형상관리 체계 등에 대한 자료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해군고속정(PKM) 2척 방글라데시에 이양

연평해전의 주역으로 양국 군사협력 증진에 기여



해군 은 한국과 방글라데시 양국간 군사협력 증진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에 중형고속정(PKM:Patrol Killer Medium) 2척을 이양하였다.

이를 위하여 금년 2월 15일 방글라데시 인수팀이 방한하여 약 50일간 우리 해군에서 고속정 운용과 정비에 관한 기술적 교육훈련, 항해시운전, 시범사격 훈련 등을 지원 받은 바 있다.

방글라데시에 해군 고속정을 이양하게 된 경위는 1996년 1월 방글라데시가 한국에 PKM 무상공여(노후함정 명

목가격 척당 미화 100달러 제시)를 건의함에 따라 우리 국방부가 양국간 군사협력증진을 위해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 1997년 7월 9일 : 양국 해군간 PKM 1척 이양 합의서 체결
- 1998년 3월 10일 :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가 1척 추가 이양 요청
- 1999년 5월 13일 : 양국 해군간 PKM 1척 추가이양 합의서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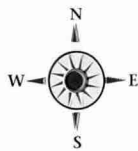
4월 17일 수송선에 선적하여 진해항을 출항, 방글라데시로 떠난 우리 해군의 고속정 2척은 지난 '78년 건조되어 22년간 한국의 연안경비를 맡아 왔으며, 지난해 6월 연평해전에서 진가를 발휘한 고속정과 동일한 유형이다.

방글라데시는 이 고속정들을 국내 치안유지 및 자체 방어로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군은 이번 고속정 이양을 통해 한·방글라데시 양국간의 군사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고속정의 해외 이양은 지난 '93년 필리핀에 이어 두번째이다.

이양 중형 고속정(PKM) 현황

일반사항	척 수 : 2척				
	일련번호 : PKM 217('78년 건조), PKM 213('78년 건조)				
건 조 사 : 대한 조선공사					
주요제원	구 분	PKM 217		PKM 213	
	속력/항속거리	최대	38KTS/300NM	최대	40KTS/427NM
		경제	23KTS/495NM	경제	20KTS/786NM
	톤 수	142.8톤		129톤	
	크 기	전장:32.92M, 전폭:6.93M		전장:32.9M, 전폭:6.92M	
선 질	하부:스틸, 상부:알루미늄				



제7회 항공기 개발기술 심포지엄 열려

항공 핵심기술 저변확대 및 기반구축 위해



박성국 공군 전투발전단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항공전력 확보와 항공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한국형 고등훈련기 T-50이 최종설계를 완료하고 제작에 착수하게 되는 의미있는 해”라고 전제하고 “국과연이 지금까지 구축한 항공기술을 기반으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매진함으로써 군의 소요를 국내개발로 대체하고 국제 시장에서도 성능과 가격면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한 무기체계로 인정받

항공기

개발기술분야의 최신 기술정보교류를 통한 산·학·연·군 협조체제 강화와 관련 핵심기술 저변확대 및 기반구축을 위한 제7회 항공기 개발기술 심포지엄이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30주년을 기념하여 600여명의 산, 학, 연, 군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4월 21일 국방과학연구소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개최된 심포지엄은 조용수 국방과학연구소장의 환영사, 안동만 제 3체계개발본부장의 대회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환영사에서 조용수 소장은 “21세기는 지식산업을 축으로한 기술의 무한경쟁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미래의 군사력은 항공기와 미사일이 주축이 될 것이며 따라서 무기체계 개발방향도 기존의 재래식 무기체계연구에서 탈피하여 핵심전력 체계개발방향으로 전환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음으로써 21세기 핵심전력인 항공우주력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임인택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장의 축사와 함께 「항공기 수명관리 기법과 향후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김동래 공군 군수참모차장의 특별강연이 진행되었다.

이 특별강연에서는 항공기 수명관리 발전과정과 그 기법, 공군 항공기의 수명관리 수행내용을 살펴본 후 공군 수명관리 발전방향이 제시되어 많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정찰용 무인항공기를 소개하는 영화 상영으로 1부 행사를 종료하고 이어서 연구실험실 견학과 그 동안 국과연에서 개발되었던 정찰용 무인항공기, 실 기체 무장조종실 실물모형, 개발중인 KT-1 통제기 모형 등이 실물로 전시되었으며, 이날의 심포지엄에서는 체계종합을 비롯한 6개 분야 총 5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